



기획시리즈



이상웅/향촌 조경수, 조경수생산
유통 심의위원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250
(0339) 353-0747

단풍나무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품종이 있으며 그 변종까지 합치면

몇 수십 종이 될지 헤아리기 어렵다.

여기에서 논하고 싶은 바는 잎의 색깔에 따른 홍단풍과 청단풍에 대한 규정이다.

홍단풍은 잎이 피어날 때 매우 붉은 색의 단풍나무를 말하며, 홍단풍의 품종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경에서 말하

는 홍단풍이란 일본에서 개발 육성된 야촌단풍(노무라단풍)을 말한다. 홍단풍은 원래 엽록소가 부진한 관계로 성장율이 청단풍보다 낮으며, 여러 사람의 기호도가 높은 관계로 보증하는 홍단풍을 식재 공사하려면 가격도 배 정도는 높다. ‘홍단풍이냐, 홍단풍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공사 발주

▼본인의 정원에 있는 홍단풍(붉은 기간 6월 중순까지)



자와 수주자 혹은 감리자 사이에 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홍단풍도 여름 7월~9월에는 완전히 푸른 색으로 변하므로 홍단풍이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홍단풍을 옮겨 심으면 청단풍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실생묘로 생산한 원래 홍단풍(야촌단풍, 노무라단풍) 나무는 그 유전형질이 제각기 다르므로 색깔과 모양이 똑같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들 중에 원래 유전적으로 붉은 형질의 적단풍은 무성번식으로 접목하여 묘목을 생산하여야 유전형질이 같은 수목을 생산해낼 수 있다. 접목한 단풍나무는 원래 생산 단가가 높아 가격이 비싸므로 실생번식한 묘목을 식재하게 되는데 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 중 순수 계열의 홍단풍은 대략 50% 정도에 불과하다.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할 경우 완전히 붉은 계통, 홍과 청의 중간 계통, 청단풍 계통의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충칭하여 속칭 ‘얼치기’라 부른다. 따라서 공사에 이용되는 홍단풍은 위에 기술한 붉은 계통을 의미한다. 홍단풍은 본래 청단풍보다 엽록소가 부족하다. 식물이 잘 성장하려면 엽록소가 많이 생겨 광합성작용이 활발할 때에 건강한 성장을 이룬다. 따라서 홍단풍에 비료를 시비하면 질소 성분이 많아지고, 잎의 색깔은 청색으로 변하며 다시 그 토양이 토박하여지면 붉은 색으로 변한다. 즉



▲본인이 생산한 홍단풍 묘목(얼치기는 전부 제거한 상태)

홍단풍은 그 토양의 입지조건에 따라 더 붉을 수도 있으며, 파래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나무 자체의 유전적 형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붉은 모양을 감상하려면 토박한 토양을 복토한 후 홍단풍을 식재하거나 혹은 뿌리를 잘라주면 붉은 색으로 변화한다. 여름에 옮겨 심은 홍단풍과 영양이 부족하여 고사 직전에 있는 홍단풍은 유난히 여름에도 붉지 않는가? 따라서 아무리 계열이 좋은 홍단풍이라 하여도 여름 7월~9월에는 홍단풍인지, 청단풍인지 구별할 수 없다. 나무를 잘 안다는 사람은 줄기만 보아도 청·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공작단풍 종자로 실생번식하면 줄기는 녹색을 띠지만 잎은 매우 붉은 홍단풍인 경우가 많다.

사진의 어린 묘목은 본인의 농장에서 재배된 홍단풍으로 잡종

및 청단풍을 완전히 제거한 좋은 예의 홍단풍이다. 홍단풍과 청단풍을 구별하는 방법에서 잎이 피어날 때의 색깔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선을 완전히 잘 받으며 피어나는 묘목은 붉은 색을 띠고, 홍단풍이라도 태양광선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에는 청색을 띠며 피어나게 된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홍단풍이라함은 가지의 색깔로도 구별되지 않으며, 잎이 필 때에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더욱 이 7월~9월 중에는 구별하기 어렵다. 한여름에 자라나는 새순 끝이 매우 붉은 색이면 줄기나 굳은 잎이 파랗다 하더라도 홍단풍으로 인정해야 한다. 잎이 피어나서 6월까지만 사진과 같이 붉으면 홍단풍으로 인정하며, 그 후로는 붉은 색이 퇴색하여 점점 검푸른 색에서 파란 녹색으로 변한다.